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진정으로 빛을 얻기 위해서는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하지만 어둠은 빛을 이겨 본격적이지 않다.” 성서에 나온 말이다. 그렇다. 언제나 빛이 이겼다. 누구나 빛을 원한다. 하지만 원하는 것만큼 주어지지 않는다.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천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간절히 노력한 만큼만 주어지기에 그렇다.

깜깜한 밤에 성냥불을 켜면 그 불빛만큼만 밝음을 얻을 수 있다. 하늘에서 빛나는 별도 역시 자신이 빛어내는 만큼만 얻는다.

칠곡 같은 어둠속을 자동차를 몰고 달리다보면 언제나 헤드라이트 불빛만큼만 주변이 환하다. 그 이상의 빛을 요구해봐도 결코 얻을 수 없다. 더 얻으려면 뭔가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어둠은 두려움이다. 두려움을

갖게 되면, 그래서 지게 되면 결코 빛을 가질 수 없다.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해야 한다.

변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구조 조정해야 한다. 구조조정하기 위해서는 낡은 사고와 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두려움을 갖는다. 실패를 걱정할 수 없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다.

따라서 불행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다. 음식물이 지천으로 널려 있다.

몇 십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풍요이다. 하지만 병마는 훨씬 더 많다. 그 주원인 중 하나는 음식조절능력 부족이다.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음식물을 섭취하기

때문이다.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인데도 섭취하면 그만쯤 운동을 통해 소모해야 한다.

물론 한계선을 넘는 운동은 독약이다.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무병장수할 수 있다.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각종 질병에 시달리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왜 그럴까.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사망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알면서도 고통을 받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다. 이처럼 습관을 고치기가 쉽지 않다. 자신의 빛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빛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진 만큼만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수상이 한 유명한 말이 있다. 육식파드 대학 졸업식에서, 그가 한말은 반복된

단 세 마디였다. 주어진 시간은 6분이었는데도, 졸업식장에 조금 늦게 도착한 중절모와 두꺼운 코트의 노신사 졸업생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단상 앞으로 느릿느릿 걸어갔다. 연로하고 약간은 지쳐 보였다. 하지만 당당하고 콧꽃했다. 약 1분 동안 청중들을 그윽하게 바라본 뒤 ‘Never Give Up!’(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이라고 말했다.

청중들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를 생각하며 숨죽이며 기다렸다. 그런데 약 40여초 동안 바라보기만 했다. 그런 다음 우렁찬 목소리로 다시 ‘Never Give Up!’이라고 외쳤다. 이때 청중들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학교 성당, 집 등을 폭격하던 때를 생각하며 눈시울을 적셨다. 침묵 속에서 어린 학생들까지도 흘렸다. 눈물을 이 노 정치가는 마지막으로 다시 ‘Never Give Up!’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런 다음 모자와 코트를 집어 들고 뚜벅뚜벅 걸어 나갔다. 이것이 가장 짧으면서도 청중들을 뜨겁게 감동시킨 역사에 길이 남을 명연설이었던 것이다.

그렇다.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으로 빛을 얻기 위해서는 빛은 언제나 어둠을 이기기에.

社說

청년들 자포자기 안 된다

도박으로 인생역전을 노리다 후회하는 청년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도박문제전문 상담 전화 헬프라인(1336)을 통해 상담한 인원은 2016년 3601명, 2017년 3845명, 2018년 4195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도박에 중독돼 있어도 스스로 도박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도박 중독자는 상담자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30대가 37.28%(1564명), 20대가 27.98%(1173명)로 ‘삼포에 희망을 잃은 2030세대’ 청년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었다. 이어 40대 16.19%(679명), 20대 미만 8.18%(343명), 50대 6.65%(279명), 60대 3.22%(133명) 70대 0.52%(22명) 순이었다. 20대 미만 청소년 상담자의 증가도 눈에 띈다. 20대 미만 상담자 비율은 2016년 5.03%

에서 2018년 8.18%로 2년 만에 2배 가까이로 급증해 이에 대한 사회와 가정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같은 기간에 20대 상담자 비율은 29.52%에서 27.98%로, 30대 상담자 비율은 40.88%에서 37.28%로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 것과 대조된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체 상담자 중 남성의 비율은 2016년 83.94%(3492명), 2017년 85.09%(3715명), 2018년 82.68%(4029명)로 매년 80%대를 웃돌았다.

도박중독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는 연간 78조 원에 달하며 음주나 흡연 문제보다도 심각한 수준으로 불법도박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제재가 필요하다.

청년들이 자포자기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한시바빠 다가오길 기대한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堅持雅操

堅持雅操

▶ 뜻: 맑은 절조(節操)를 굳게 가지고 있으면 나의 도리(道理)를 극진(極盡)히 하는 것이다.

피난약자시설 안전관리 생활화 해야

여러 기관이나 언론보도, 칼럼 등을 보면 사회적 약자시설, 취약계층, 요양병원, 전통시장,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장소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나 화재 발생 시 사회적 충격으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크다는 안전관리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가끔 발생하고 있는 대형 화재 또한 분명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교육 때면 자주 강조하고 있는 1:29:300이라는 하인리히 안전관리 법칙을 재강조하고 싶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300번의 사소한 전조가 나타나며 이후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으며 나중에는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결국 크고 작은 사고 이전에 같은 원인에서 비롯돼 나타난다는 내용이다.

재난에는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와 화재, 폭발, 교통사고와 같은 인적재난이 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도 자연재난으로 포함하기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화재와 교통사고는 그 피해가 크고 오랫동안 반복돼 왔으며 소방기관에서 육상재난대응기관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상시 관리체제가 구축 돼 있지만, 폭발·가스·추락 등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돌발적으로 그리고 단편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제도적 접근과 사고 예측은 한계가 있어 대응에 어려운 면도 있다.

인적재난은 사람들이 방심하는 틈을 노려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집중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다. 봄철 나른한

시기, 설·추석 명절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역·터미널, 여름 휴가철, 봄·가을 행사가 많은 행사철이 바로 그 때이다.

이러한 취약시기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 예측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인명피해 경감에 소관 부서들은 최선을 다해야겠다.

취약시기별 안전관리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봄철 나른한 해빙기 이후에는 주위 낙화시설, 풀음 운전사고, 음식물 울러놓고 있어버리기 쉬운 음식물 탄화, 여름 휴가철에는 물놀이사고, 명절에는 교통사고, 행사철에는 붐과, 자그마한 불씨에서 이어지는 대형화재이다.

우리 무안소방은 지난 겨울부터 요양원 등과 같은 사회적약자시설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중점적으로 안전관리를 최고의 목표로 해 우선 정책을 추진 취약시설 제거, 피난시설 보강, 전통시장 호스릴

소화전 설치 등 시·군청과 소방서간 협업으로 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사례로는 무안군과 무안소방서간 협업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호스릴 소화전을 조속히 설치해 화재 초기진압에 대응했으며 시장 건물 벽면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등 소방과 시·군청이 공동으로 관심을 갖으면 안전효과는 배가된다는 우수사례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모든 도민들은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양보 운전 실천과, 가정마다 직장마다 소화기를 비치하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심폐소생술 익히기 등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반복 연습하며 유사시 적극 활용해야겠다.

윤승호 / 무안소방서 진압반장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편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편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